

시론

탈북민 3만 명... '먼저 온 통일' 활용하자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가 11월 중으로 3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탈북 동기도 예전과 크게 달라져 단순히 빵보다는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오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태영호 주영공사 가족, 국가안전보위부 국장급 인사, 홍콩 수학올림피아드 참가 수학영재 등 엘리트 계층의 한국행은 이른바 '이민형 탈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8월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 동기는 '자유에 대한 동경', '체제 불만' 등 정치적 사유가 20% 이상이고, 이들의 북한 거주 시 생활수준도 '보통 이상'이 70%에 가까웠다. 이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이탈의 추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탈북 러시 현상을 '먼저 온 통일'에 비유하며 이제 통일준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과거 독일이 분단 시절 동독을 탈출하는 난민 수가 한 해 30만 명까지 폭증하는 상황에서 동독 난민들을 적극 흡수하고 이들을 통일의 인적 자산으로 삼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도시생활 자립·자활 지원과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두 트랙으로 운영해 이들을 자유민주 공동체 속에 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이 같은 정책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고 예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일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때문에 지금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먼저 온 통일'로 인식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슬기로움만이 7500만 겨레가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

동네행복지킴이 봉사단원 워크숍

통일선봉대 발대식 및 출산장려 캠페인 견해 실시

'2016 동네행복지킴이 전국 봉사단원 워크숍'이 10월 18~19일 충남 보령시 용평리조트 비채팰리스에서 시·도지부 여성협의회장 및 시·군·구지회 여성회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여성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여성통일선봉대 발대식과 출산장려 캠페인 견해를 이뤄졌다.

전국 여성회장들은 통일선봉대의 지역 리더로서 건전한 통일관 확산 등 다양한 통일준비



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 데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개회식에는 김경재 중앙

회장, 신홍식 중앙부회장, 최대구 충남도지부 회장, 최선남 전국여성협의회장, 김신우 전국청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 '북핵규탄 범quel기대회'

김경재 회장 "확고한 안보태세" 역설

김경재 중앙회장이 10월 23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연맹과 (사)국민행복운동대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북한 핵 규탄 범quel기대회'에 참석, 대회를 겸한 대표연설을 했다.

김경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폭주로 인해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작금의 위기 상황은 한 정권이 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5000만 자유민주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민족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런 때일수록 국론을 통합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행사에는 대구시지부 등 애국단체 회원 500여 명이 자리했다.

정책연구위원 토론회 및 특강

연맹은 10월 19일 서울 자유센터 예지원 강당에서 '정책연구위원 토론회' (사회: 류여해 수원대 교수)를 개최했다.

주제별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현대사의 오해와 진실)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제2주제(대한민국 체제 위기 실상) - 이희천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 연구위원, 이준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제3주제(국론통합 저해 요인과 대안) -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 ▶제4주제(통일의 필요성과 연맹의 역할)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소장, 남광규 고려대 아연 교수.

한편 토론회에 앞서 연맹 고문인 여상환 국제경영연구원장의 특강(주제: 나라의 혼을 지키는 일)이 있었다. <토론·특강 요지 8면>

11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1~15일)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정치선 지키기 캠페인(노원구)	8일	노원역	10명
	환경정화 캠페인(중구)	15일	구민회관 일대	50명
	교통안전 캠페인(강북구)	9일	강북구청 사거리	60명
부산	자유가치 확산의 날 기념식(시지부)	1일	자유회관	330명
	지구촌재난구조단 응급처치 경연대회(시지부)	12일	구 해사고교	100명
대구	무료급식 봉사(수성구)	8일	청곡사회복지관	150명
	호국도서 독후감 시상식(북구)	9일	북구청	200명
인천	나라사랑 통일리더십 아카데미(시지부)	12일	인천통일관	50명
	청소년 내고장알기 견학(중구)	5일	팔미도등대	20명
광주	환경정화 캠페인(동구)	12일	계림동	10명
대전	'사랑의 김장' 봉사(유성구)	11일	지회	20명
울산	환경정화 캠페인(동구)	11일	명덕수변공원	7명
세종	회원 안보현장 견학(시지부)	12일	평택 해군2함대	45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구리시)	15일	수택동	10명
강원	안보정세 설명회(삼척시)	1일	지회	60명
충북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사업(충주시)	9일	수안보파크호텔	150명
	청소년 선도활동(진천군)	1일	진천읍	60명
충남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계룡시)	1일	엄사면 총령탑	100명
	회원 한마음 대회(서산시)	6일	순창 강천산	80명
전북	영호남 한마음 대회(김제시)	11일	구미시	40명
전남	교통안전의식 역량강화 교육(여수시)	8일	지회	45명
경북	안보현장 견학(도지부)	9일	대전현충원	40명
	아동 성폭력 예방활동(경산시)	4일	서부2동	8명
경남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도지부)	9일	자유회관	40명
	무료급식 봉사(김해시)	3일	북부동 노인회관	20명
제주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서귀포시)	4일	서귀포여고	230명